

어린이희곡 '콩푸 아니고 똥푸' 발간

최기우 극작가,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 동화집 각색

최기우 극작가가 각색한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인 동화집 '콩푸 아니고 똥푸'가 어린이희곡으로 나왔다.

작가에 따르면 2017년 발간 이후 독자와 평단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 동화집은 어린이들이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치지만,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세 편의 단편이 담겨 있다. 이중 희곡으로 각색된 작품은 '콩푸 아니고 똥푸'와 '리면 한 줄' 두 편이다.

'콩푸 아니고 똥푸'는 교실에서 바지에 똥을 싼 단어가 우주 최고의 무술 똥푸를 하는 똥푸맨을 만나고, '리면 한 줄'은 시궁쥐 '리면한 줄'이 외눈박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책임을 맡으면서 당당한 삶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닫는 이야기다.

특히 동화가 희곡으로 바뀌었지만, 원작의 의미는 더 충실해졌다는 평이다. 막과 장 사이에 크고 작은 이야기와 극적인 장면들이 더해지면서 내용은 풍성해졌고 다정해졌다. 또 인물들의 말은 소리 내 읽고 싶을 만큼 개성 있고

행동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노래와 춤은 자연스레 가락이 붙고 어개가 들썩일 만큼 흥겹다.

장르가 바뀌면서 인물과 사건,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요소가 지문이나 대사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장르 간 차이를 짚어 보는 것은 색다른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 준다. 원작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교과 과정과도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년 구별 없이 낭독극 교재로도 충분하다.

최기우 작가는 "희곡 문학을 알리는 데 이 작품들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으로 배우가 되고, 연출이 되고, 가수가 되고, 작곡가가 되고, 춤꾼이 되는 놀라운 변신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년 넘게 다양한 형식의 무대극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최기우 작가는 희곡집 '상봉', '춘향꽃이 피었습니다', '은행나무꽃', '달랑개 와, 어린이희곡 '뽕뽕뽕 방귀쟁이 뽕함마니', '노잣돈 갖기 프로젝트' 등을 냈다.



'콩푸 아니고 똥푸'

현재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연극'을 강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KBS전주 '우리 집 금송아지' 첫 방영

도내 14개 시군 시골 마을 찾아가는 진품명품 프로그램

KBS전주방송총국의 새 프로그램 '우리 집 금송아지'가 10일 오후 7시 40분 1TV에서 첫 방영된다.

일명 '찾아가는 진품명품'이다. 도내 14개 시군의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의 집에 숨겨져 있는 옛 물건들, 즉 '금송아지'를 찾아내 물건에 담긴 사연을 듣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첫 화의 주인공은 남원시 대강면. 배 타고 건너온 구형 일제 오디오. 우직했던 소의 땀이 땀 땀에, 아내의 애절한 사랑 듬뿍 담긴 삼베 수의까지 다양하다.

제작진은 "배주 맨땅에 헤딩하듯 수차례 걸친 답사를 통해 발품을 팔며 옛 물건들을 찾아내고 있다"며 "시청자들 역시 시골의 가정집에서 발견되는 물건들의 다채로움과 물건이 품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30년 넘게 '6시 내고향'에서 시골 버스를 타며 어르신들을 만났던 가수 김정연이 MC를 맡은 것 또한 눈길을 끈다. 무려 30년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빈 세월 덕분에, 시골 마을에서 김정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는 없을 정도로 어르신들에게는 그가 곧 '블랙핑크'고 '뉴진스'다.

또 한명의 MC는 '개그콘서트'에서 데뷔하고 '사마귀 유치원' 코너로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린 코미디언 정병균이다. 소탈하고 겸손한 성격과 특유의 솔선수범함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며 김정연과 함께 '누나와 남동생' 케미를 자랑할 예정이다.

한편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우리 집 금송아지'는 마을 어르신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옛 물건들을 '금송아지'라고 부른다. 촬영 중 발견되는 '금송아지'는 다양하다. 아주 가끔씩 참고 깊숙이 방치해둔 고가구에서 감정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문서 더미가 발견될 때도 있지만, 평범한 시골마을 가정에서 보류한 '금송아지'는 때로는 옛 초등학교 졸업장이나 일기장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보물이거나 시골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던 키나 요강 등 생활용품일 때가 대부분이다.

프로그램의 말미에는 해당 편의 '최고의 금송아지'로 선정된 어르신에게 순금 1돈의 금송아지 모형을 선물한다. 선정의 기준은 1차적으로는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감정위원들이 매긴 감정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건에 담긴 물건 주인의 사연이다. 반질반질하게 물은 손때에서 느껴지는 시골 어르신들의 짧은 시절과 그 때의 희로애락이, 언뜻 보면 평범한 물건들을 '금송아지'로 변모시키는 프로그램의 진짜 주인공이다.

/장은성 기자

고창읍성 옆 판소리문화공간 '신재효판소리공원' 확정

전문가 회의 등 협의의 결과 명칭 정해

고창군 고창읍성 옆 판소리문화공간이 '신재효판소리공원'으로 이름 붙여졌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읍성 옆 판소리문화공간이 부분 완공돼 '신재효판소리공원'으로 이름을 확정했다.

군은 해당 시설에 적합한 명칭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전문가(정병현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훈상 동아대 명예교수, 이찬규 중앙대 교수) 자문회의를 거쳐 되었고, 협의의 결과 '신재효판소리공원'으로 확정됐다.

논의 과정에서 '봉리정사'로 불렸던 명칭은

신재효 선생 사후에 행장을 기록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표현으로, 전체 공간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신재효판소리공원'은 판소리 관련 시설물을 통칭하는 명칭이며, '공원'은 누구나 동참하는 열린 공간임을 의미한다.

신재효판소리공원은 세미나실, 판소리체험실, 판소리독음실, 야외공연장과 향후 행랑채, 석가산, 정일 등을 추가적으로 재현할 예정이며, 각각의 개별 시설물은 문헌자료 등의 근거를 통해 별도의 적합한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봉리 신재효(申在孝, 1812~1884) 선생은 전북

고창의 부유한 중인층 출신으로 판소리를 집대성하였으며, 판소리 후원자, 교육자, 이론가로 현신한 인물이다.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 '판'에서 소리꾼이 교수의 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는 우리의 문화로 세상에 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판소리로 부를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판소리 중흥의 계승기반 구축과 판소리 대중화를 선도,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세계유산도시에 걸맞은 수준높은 문화콘텐츠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립농악단, 매주 토요일 버스킹식 농악공연 펼친다

정읍시립농악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매주 토요일 버스킹식 농악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하루 1회 열리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내장산문화관광 어린이놀이시설(생안동 536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읍농악과 전통연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토요일 상설 공연은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정읍농악 연행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정읍농악

이수자와 전통연희 전공자로 구성된 정읍시립농악단이 다양한 기량을 열정과 함께 펼쳐 보일 예정이다. 특히, 정읍농악 판굿을 통해 정읍농악의 흥과 화려함을 선보이고, 비나불이와 설장구, 12발 상모 등 화려하고 신명 나는 전통 연희마당으로 시민들에게 정읍농악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겨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 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농악기와 연희 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리문화전당,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9일 임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전당은 전북지역 혈액 수급난이 발생할 때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행사를 진행해 왔다.

서현석 대표는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도 헌혈운동에 동참해 전당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카텍에이치, 탄소예술 진흥 위한 협약 체결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8일 카텍에이치(대표이사 정진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탄소산업과 예술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탄소소재 활용 예술작품 제작사례 발굴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선순환 구조 기여, 탄소예술 작품 활동을 위한 리사이클 소재 수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탄소섬유 재생혁신기업인 (주)카텍에이치는 경기도 소재 탄소섬유 제조업체로, KIST로부터 탄소섬유 화학적 처리기술을 이전받아 고품질 친환경 리사이클링 처리기술을 가진 탄소산업 분야 유망 기업이다. 특히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 재활용 분야에서 국가 200대 기술에 선정될 정도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존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재활용 기술(열소각법)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재활용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한편 9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3회차를 맞는 탄소예술기획전에 26명의 예술가가 지원, 최종 13명을 선정했다. 3월 중순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이론 및 심화교육이 실시되



고, 6개월 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탄소섬유 후원의 의미를 넘어 탄소 기업과 예술가 간 협업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원받은 탄소 소재를 활용해 탄소예술 문화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호 대표이사는 "탄소복합재를 예술작품 소재로 재사용함으로써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ESG 경영 실천은 물론, 더 많은 탄소기업이 탄소예술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